노인의 죽음준비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
-우울 및 죽음불안의 메개효과를 중심으로-

문남숙·남가민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노인의 죽음준비도를 독립변수로, 노인의 우울 및 죽음불안을 메개변수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로서 자기통합감을 중속변수로 설정하고,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하고 이를 변수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해 볼 목적으로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죽음준비 및 건강한 노후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연구문제에 따라 체력, 학력, 건강상태, 경제수준, 외부활동참여도에 따라서는 연구변수들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의 성공적 죽음준비도는 성공적 노화로서의 자기통합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의 성공적 죽음준비도는 성공적 노화로서 자기통합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준비도는 노인의 성공적 죽음준비도가 성공적 노화로서의 자기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노인의 우울 및 죽음불안이 부분 메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죽음준비도, 우울 및 죽음불안, 메개효과, 성공적 노화, 자기통합감

I. 서론

오늘날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해 보건의료의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봉사 청춘은 우리나라가 현재의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에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시기가 되면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180만명으로 늘어나며, 현재 78세인 평균수명도 80.7세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높 노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긴 노년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객관적 삶의 질을 못지 않게 주관적인 삶의 질이 노인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주관적인 삶의 질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로서 삶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김미순, 2006).

한편, 최근의 우리나라의 노인자살율의 급증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노인의 자살사망율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살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노인의 죽음준비도의 방향에 따라 삶의 질 저하에 따른 현실의 우울을 분명하게 극복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인 노화에 공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수용도가 결정된다. 본 연구는 죽음에 관련된 문제를 피복하여 말고 정의로 다니 공정적으로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공정적으로 재정립하고 재정립에 참여하는 시간들을 의미있게 보며 보다 성공적 노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 연구가 더욱 더 활발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심려가 흐려져 나아지고 긍정적 전망도 예견된다. 삶의 질 저하를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을 위한 노동 발발 및 삶의 질 저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기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존재로서 죽음준비도, 매개변수로서 우리과 죽음준비도, 성장변수로서 성공적 노화로서의 자아통합감을 설정하고,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차이를 점검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극적으로 노인복지실현관에 활용할 수 있는 죽음준비교육 및 건강한 후유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노인의 죽음준비도, 우울, 죽음관련, 성공적 노화로서의 자아통합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노인의 정신적 죽음준비도 및 의례적 죽음준비도는 성공적 노화로서의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삼째, 노인의 우울 및 죽음관련은 노인의 정신적 죽음준비도 및 의례적 죽음준비도 성공적 노화로서의 자아통합감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